

##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및 종결방식과의 관계

Relationship of Children's Quality of Friendship and Conflict Resolution :  
Strategies and Outcomes

김송이(Song Yee Kim)<sup>1)</sup>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quality of friendship,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conflict outcomes by peer status. Thirty-four elementary school 5th grade dyads were selected by peer status and friendship status. The major results were that (1) popular children perceived more help and less conflict and rivalry from friends than rejected children. (2) Popular children used more compromising/integrating and less dominating strategies than rejected children to resolve conflicts. Conflicts between popular-average pairs resulted in equal outcomes more often and unresolved outcomes less often than rejected-average pairs. (3)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friendship quality,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conflict outcomes by peer status.

**Key Words** : 친구관계의 질(friendship quality), 갈등해결방식(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갈등종결방식(conflict outcomes).

### I. 서 론

친구관계란 두 사람이 상호 의존하는 개인적 수준의 관계로, 자발적이고 서로 간에 믿고 의지하며 물리적·감정적인 교환을 맺고 있는 관계이다(윤진, 1984). 이러한 친구관계를 통해 아동

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받고 이후의 원만한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아동기의 친구관계는 또래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 친구관계는 친구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이를 유지하고 종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친구 간에 나뉠대로의 절적인 특

<sup>1)</sup>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Song Yee Kim,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ea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 : ssong216@hanmail.net

성을 발달시켜간다. 친구관계의 질은 친구 간에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제공되는 기능의 종류와 아동의 사회정서적 또는 도구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지원의 기능 뿐만 아니라, 갈등, 경쟁, 배신 등의 부정적 속성도 포함된 개념이다(이은혜, 1999).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친구에게서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남아와 여아는 모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반면, 친구관계가 갈등적인 아동은 더 많이 외로워하고 학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원정 · 이은혜, 2000;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친구관계의 질은 관계를 맺는 친구 쌍마다 다양한데, 특히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이러한 친구관계의 질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Parker와 Asher(1993)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지위와 친구관계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인기 아동의 친구관계는 인기 아동보다 질적인 면에서 더 낮았다. 국내 윤미경(1999)의 연구에서도 또래지위가 낮은 아동이 높은 아동에 비해 친구로부터 갈등과 배신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지각하였으며 갈등을 해결하는데 더 어려워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이더라도 단짝 친구가 있는 아동은 외로움이나 또래 괴롭힘, 성적 부진, 비행 등의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등(Ladd & Burgess, 2001), 또래지위 뿐 아니라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아동의 긍정적 적응과 깊이 관련된다. 아동은 학교의 또래집단 내에서 또래관계와 친한 친구와의 이원적인 친구관계를 동시에 경험하는데, 친구관계는 아동의 긍정적 적응에 기여하는 반면, 또래지위는 아동의 부적응을 효과적으로 예측한다(Vandell & Hembree,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적 부적응의 위험이 있는 또래에게서 거부되는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적인 특성이 인기있는 아동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정서적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이 인기있는 아동에 비해 친구관계에서 갈등적 요소가 더 많다면, 실제로 이들이 이러한 친구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갈등과 분쟁은 친구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아동이 경험하는 친구와의 갈등의 정도와 갈등을 쉽고 자발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은 별개의 영역이다(Carlson-Johnes, 1985).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친구와의 갈등을 잘 해결하는 아동이 있는 반면, 친구와의 갈등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아 친구관계까지 멀어지는 아동도 있다. 따라서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보다는 갈등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친구관계의 유지와 질에 중요할 것이다.

갈등해결방식과 친구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본 Rose와 Ahser(1999)는 친구 간에 절충/타협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친구관계의 갈등과 부적 관계가 있었으며, 자신의 이해관계 주장 전략과 적대적 전략은 친구관계의 갈등과 정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 실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해결방식을 살펴보지 않고 아동의 보고에 의존한 연구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아동들이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어떠한 갈등해결방식을 사용하는지를 관찰하여 분석함으로써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친구와의 갈등을 종결하는 방식도 사회적 기술과 갈등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미래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Siddiqui & Ross, 1999). 갈등종결방식은 갈등에 참여한 두 개인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행동의 결과로써 나타난 보상과 비용의 종결 상태를 의미한다(Vliert, 1997). 또래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평등성의 정도에 기초해서 갈등종결방식을 분석할 수 있는데(Hartup, Laursen, Stewart, & Eastenson, 1988), 갈등 당사자들의 이익이 모두 실현되고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평등한 결과'가 가장 긍정적인 갈등 종결의 유형이다(Siddiqui & Ross, 1999). 이에 반해 종속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되어 분명한 승자와 패자가 있는 유형은 바람직하지 않은 종결방식이다. 또한 해결된 갈등에 비해 해결되지 않고 종결되는 갈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Katz, Kramer, & Gottman, 1992)도 있다. 갈등종결방식은 갈등해결방식만큼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친구 간 갈등이 친구관계의 질과 친구관계의 유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갈등이 얼마나 평등하게 종결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동 중기 청소년기에 걸쳐서 특히 중요한 친구관계의 질은 그동안 국내에서 또래지위(윤미경, 1999)와 자아지각(오원정·이은혜, 2000)에 따른 차이, 그리고 우울(임은정, 2005)과 관련해서 연구되어 왔다. 갈등해결전략(배선영, 2000)과의 관련성도 연구되었지만, 이 연구는 아동이 친구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사용했다고 보고한 갈등해결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에 실제로 아동이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종결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러한 방식과 친구관계의 질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인 친구관계에서 아동이 친구와 실제

로 경험하는 갈등에서 보여주는 갈등해결방식 및 갈등종결방식과 친구관계의 질이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은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구조화된 상황에서 친구와의 갈등해결방식과 갈등종결방식은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학령기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및 갈등종결방식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중류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 한 곳을 임의 선정하여, 그곳의 5학년 아동 34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 중기 및 초기 청소년기가 동성 또래 및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단짝친구관계 시기라는 지적(Sullivan, 1953)에 기초한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5학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학급 내 동성 또래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의 이름을 적고 그 친구를 대상으로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아동이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1차 연

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Coie와 Dodge(1983)의 또래지명 절차를 사용하여 각 학급 내에서 아동의 또래지위를 인기, 보통, 무시, 양면성, 거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쌍을 선정하기 위해서 1차로 선정된 상호 친구쌍 중에서 한 아동의 또래지위가 인기 아동이거나 거부 아동이고, 다른 한 아동의 또래지위가 보통인 친구쌍을 선정하였다. 이 중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을 연구의 초점 아동으로 하였다. 초점 아동 뿐 아니라 상대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서도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대 친구의 또래지위를 보통 지위로 통제하였다. 또한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을 초점 아동으로 선정한 것은 또래에게 거부된 아동이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Parker & Asher, 1993)에 따라 이들의 갈등관리 방식이 인기 아동에 비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기/보통 친구쌍이 20쌍(남아 8쌍, 여아 12쌍), 거부/보통 친구쌍이 14쌍(남아 7쌍, 여아 7쌍), 총 34쌍의 친구쌍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친구쌍 중에서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의 경우 초점 아동의 자료만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짝으로 갈등 에피소드에 포함된 보통 지위의 아동들의 자료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갈등종결방식은 쌍을 이룬 두 아동 모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므로 두 아동 모두의 행동에 기초해서 분석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친구관계의 질 척도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이은혜와 고유주(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친구관계의 질을 4점 척도, '아주 많이 그렇다'(4점), '많이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2점), '아주 조금 그렇다'(1점)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친구관계 질 척도의 하위 영역은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그리고 '즐거움의 공유'의 6개 긍정적 기능 영역과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갈등'과 '경쟁',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총 9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은 새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부여하는 '정서적 안정'(문항 예 : 네가 슬플 때 ○○는 너를 위로해 주니?), 친구와의 안정된 관계와 충직함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신뢰'(문항 예 : 멀리 이사가도 ○○는 계속 너의 친구로 남아있을까?),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충고하고 정보를 주며 도와주는 '도움'(문항 예 : 내가 필요할 때 ○○는 네 부탁을 들어주니?),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수용적인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친구의 욕구나 상태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친밀감'(문항 예 : 너는 ○○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니?), 칭찬, 격려 등을 통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인정'(문항 예 : ○○는 네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해주니?), 친구와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과 그에 따른 재미와 즐거움 등을 의미하는 '즐거움의 공유'(문항 예 : 너는 ○○와 같이 노는 것이 재미있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으로 의견의 불일치, 다툼 또는 친구의 괴롭힘 등 불편한 상황에 대한 인지인 '갈등'과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비교하는 경쟁심을 의미하는 '경쟁'이 있다. 이외에 친구관계에 대한 애정과 만족을 의미하는 '만족감'을 포함하여 총 9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영역별로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는 갈등이 .68로 낮은 편이었으나, 이 외에는 .81에서 .95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 2) 구조화된 갈등상황에서의 갈등해결방식과 갈등종결방식

아동들이 실제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먼저 교사 연구실을 실험실로 구성한 뒤, 연구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친구 쌍을 점심 시간을 통해서 실험실로 내려오게 하였다. 친구 간에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고안된 도미노 게임을 연구대상 쌍에게 제시하였다. 친구 쌍에게 도미노 구성을 위한 도안을 제공하고 두 아동이 서로 상의 하에 한 가지 도안을 정해서 도안대로 도미노로 구성을 한 뒤, 최종적으로 누가 도미노를 쓰러뜨릴지 결정하게 하였다. 이러한 도미노 게임을 하는 동안, 아동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비디오 녹화를 하였고, 녹화된 테이프를 추후 분석하였다.

녹화된 내용 중에서 분석 단위가 되는 또래갈등 에피소드를 선정하였다. 갈등 에피소드는 '아동 1이 아동 2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말이나 행동을 시도하고, 아동 2가 이에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으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경우'에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갈등 에피소드의 종결 시점은 Eisenberg와 Garvey(1981)의 기준에 따라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 반대 행동이 일어난 시점'으로 보고 갈등이 분명하게 해결되었을 때, 또는 다른 활동을 위해서 분쟁을 분명하게 포기하였을 때, 혹은 협상이나 반대와 같은 행위가 20초 동안 없거나 활동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로 보았다.

이러한 갈등 에피소드에서 보여진 행동과 언어를 전사한 후, 아동별로 구조화된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갈등해결방식을 절충/협력, 회피, 지배, 양보, 중재 요청의 5가지 범주로 측정하였

다. 이러한 관찰 범주는 김송이와 박경자(2001)의 갈등해결방식을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절충/협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유를 설명하거나 자신의 원래 의견을 수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피'는 상대의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모른척하고 자신이 하던 과제를 계속하거나 자리를 떠나거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서 갈등 주제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지배'는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를 추구하지 않고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원래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 혹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 아동에게 신체적, 언어적인 해를 가하는 행동 또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양보'는 자신의 의견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상대 아동의 의견에 따르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중재 요청'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이나 다른 또래에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친구 간 갈등이 종결된 후 해결방식에서 나타난 평등성의 정도에 관련해서 평가하는 갈등종결방식은 두 아동에게 모두 평등하게 해결되는 '평등한 해결', 초점 아동이 요구하는 대로 상대 아동이 복종해서 종결되는 경우는 '초점아동 승', 상대 아동이 요구하는 대로 초점 아동이 복종해서 갈등이 종결되는 경우는 '초점아동 패',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는 '해결되지 않음', 그리고 기타 사고로 종결되는 '기타'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찰자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전체 관찰대상 중에서 인기 아동 3명과 거부 아동 3명(17.6%)의 비디오 녹화 자료를 무선으로 선정하여 대학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명과 본

연구자간에 갈등해결방식과 종결방식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갈등해결방식은 94%, 갈등종결방식은 93.2%의 일치도를 보였다.

### 3. 자료분석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및 갈등종결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및 갈등종결방식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사례수가 작아서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별로 Pearson의 상관분석이 아닌 Spearma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친구관계의 질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친구관계의 질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1>에 친구관계 질의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만족감'의 평균이 3.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즐거움의 공유'(M=3.57)와 '신뢰(M=3.50)'가 높았으며, '도움', '인정', '친밀감'의 평균 점수는 대체적으로 2.5에서 3.0 사이로 '조금 그렇다'에서 '많이 그렇다'의 사이 정도였다. 6가지 긍정적인 기능 전체 점수도 3.11로 전체적으로 친구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M=1.86)과 '경쟁'(M=2.05)도 조금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친구관계의 질의 하위영역별 평균

	또래지위		전체 (N=34)	
	인기 아동 (n=20)	거부 아동 (n=14)		
긍정적 기능	정서적 안정	3.23(.71)	3.00(.79)	3.13(.74)
	신뢰	3.55(.57)	3.43(.60)	3.50(.57)
	도움	3.19(.58)	2.68(.77)	2.98(.71)
	친밀감	2.81(.86)	2.63(.85)	2.74(.85)
	인정	2.91(.78)	2.52(.63)	2.75(.74)
	즐거움의 공유	3.66(.52)	3.43(.48)	3.57(.51)
부정적 측면	갈등	3.23(.49)	2.95(.49)	3.11(.50)
	경쟁	1.57(.52)	2.29(.79)	1.86(.72)
만족감	1.70(.95)	2.58(.75)	2.05(.97)	
만족감	3.74(.48)	3.52(.60)	3.65(.54)	

( )안은 표준편차임.

\**p*<.05 \*\**p*<.01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이들이 보고한 친구관계의 질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갈등'(t<sub>(32)</sub>=-3.14, *p*<.01)과 '경쟁'(t<sub>(32)</sub>=-2.79, *p*<.01), '도움'(t<sub>(32)</sub>=2.1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보다 친한 친구에게서 충고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친구와 갈등과 경쟁도 더 적다고 지각하였다.

### 2. 갈등해결방식과 갈등종결방식

먼저 구조화된 갈등상황에서 실제로 친한 친구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연구 대상 아동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갈등해결방식의 점수는 비율점수로써, 각 아동이 친구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 5가지 해결방식들을 사용하는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표 2>에는 아동의 또래지

<표 2>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해결방식 및 종결방식의 평균

	양 보	또래지위		전체 (N=34)
		인기 아동 (n=20)	거부 아동 (n=14)	
갈등 해결 방식	지 배	0.10(.14)	0.07(.08)	0.08(.12)
	절충/협력	0.11(.15)	0.28(.20)	0.18(.19)
	회 피	0.75(.21)	0.60(.18)	0.68(.21)
	회 피	0.02(.07)	0.06(.08)	0.04(.07)
갈등 종결 방식	중재 요청	0.01(.05)	0.02(.05)	0.02(.05)
	평등한 해결	0.77(.34)	0.48(.24)	0.65(.33)
	초점아동 승	0.08(.23)	0.14(.20)	0.11(.22)
	초점아동 패	0.15(.26)	0.24(.30)	0.19(.27)
	해결되지 않음	0.00(.00)	0.06(.07)	0.02(.05)
기 타	0.01(.02)	0.07(.13)	0.01(.09)	

( )안은 표준편차임.

\* $p < .05$  \*\* $p < .01$

위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아동들은 친구 간에 실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절충/협력’ 방식을 68%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배’ 방식(18%)을 사용하였고, ‘양보’(8%), ‘회피’(4%), ‘중재 요청’(2%)의 순이었다.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이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배’와 ‘절충/협력’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t_{(32)} = -2.76, p < .01$ ;  $t_{(32)} = 2.70, p < .05$ ). 즉 친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에 비해 절충/협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지배적인 방식은 더 적게 사용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상황에서 친구 간에 발생한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 종결되었는지 갈등종결방식을 살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

구 간에 발생한 갈등의 65%는 두 아동이 어느 정도는 만족할만한 ‘평등한 해결’로 종결되었다. 한 아동의 주장에 다른 아동이 복종하는 ‘승/패’로 종결되는 사례는 연구 초점 아동의 주장대로 종결되거나 아니면 상대 아동의 주장대로 종결된 경우를 합해서 30%로 대략 전체 갈등 발생빈도의 30%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친구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는 2%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두 아동이 각각 자신의 주장하거나 원하는 대로 도미노를 놓는 경우였다. 한편, 두 아동이 갈등을 해결하기 전에 쌓고 있던 도미노가 쓰러져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교사나 자신의 상대 아동을 제외한 다른 또래에게 갈등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시켰다.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갈등종결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갈등이 평등하게 해결된 경우와 해결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t_{(32)} = 2.77, p < .01$ ;  $t_{(13)} = -3.00, p < .01$ ). 즉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에 비해서 친구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아동이 서로 만족할만하게 평등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해결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는 더 적었다.

### 3.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간의 관계

아동이 보고한 친구관계의 질과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간의 관계가 아동의 또래지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별로 상관을 구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기 아동은 ‘양보’와 ‘신뢰’( $r = .55, p < .05$ ), ‘절충 및 협력’

1) Levene의 등분산 검증에서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음.

〈표 3〉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간 상관

(N=34)

	양보		지배		절충/협력		회피		중재 요청		
	인기아	거부아	인기아	거부아	인기아	거부아	인기아	거부아	인기아	거부아	
긍정적 기능	정서적 안정	.13	-.22	.00	.00	.16	-.05	-.20	.21	-.14	-.09
	신뢰	.55*	.24	-.32	-.21	-.05	.26	-.21	-.24	.23	.21
	도움	.14	-.02	-.14	-.00	.21	.12	-.15	-.18	-.39 <sup>+</sup>	.09
	친밀감	.12	-.06	.09	-.05	.18	.08	-.45*	-.13	-.38 <sup>+</sup>	-.05
	인정	.00	.29	-.13	.15	.25	.06	-.02	-.29	-.38 <sup>+</sup>	.10
	즐거움의 공유	.36	.03	.07	-.54*	-.01	.51 <sup>+</sup>	-.36	.09	-.25	.30
	전체	.21	.00	-.10	-.24	.19	.30	-.23	-.13	-.38 <sup>+</sup>	.12
부정적 측면	갈등	-.15	-.02	-.25	-.26	.47*	.35	-.22	-.22	-.18	.65*
	경쟁	-.15	.03	-.05	-.29	.17	.36	.17	-.36	-.23	.04
만족감	.38	-.02	-.45*	-.31	.11	.35	.00	-.21	.18	.05	

<sup>+</sup>p<.10 \*p<.05

과 ‘갈등’(r=.47, p<.05)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지배’와 ‘만족감’, ‘회피’와 ‘친밀감’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r=-.45, p<.05; r=-.45, p<.05)이 있었다. 즉 인기 아동의 경우, 친구관계가 신뢰롭다고 지각할수록 그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에게 양보를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친구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절충 및 협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친구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할수록 인기 아동은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를 지배하는 방식을 더 적게 사용하였고, 친구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회피 방식을 더 적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재 요청’은 ‘도움’, ‘친밀감’, ‘인정’, 그리고 ‘기능 전체’ 점수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적 상관의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즉 인기 아동은 친구관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그 친구와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은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거부 아동은 ‘지배’와 ‘즐거움의 공유’간에 유의한 부적상관(r=-.54, p<.05), ‘중재 요청’과 ‘갈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r=.65, p<.05)이 나타났다. 즉 거부 아동은 친구와 즐거움을 공유한다고 지각할수록 그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 방식을 덜 사용하고, 친구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의 중재 요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충 및 협력’과 ‘즐거움의 공유’ 간에 .10수준에서 정적 상관(r=.51, p<.10)이 나타났다. 즉 거부 아동은 친구와 즐거움을 공유한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충 및 협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4.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종결방식간 관계

아동이 보고한 친구관계의 질과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실제로 갈등을 종결하는 방식간의 관계가 아동의 또래지위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



〈표 4〉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종결방식간 상관

(N=34)

	평등한 해결		초점아동 승		초점아동 패		해결되지 않음		
	인기아	거부아	인기아	거부아	인기아	거부아	인기아 <sup>2)</sup>	거부아	
긍정적 기능	정서적 안정	.01	-.03	-.04	.10	.05	-.33	-	.26
	신뢰	-.10	.41	.17	-.28	-.10	-.17	-	.13
	도움	-.27	.30	.03	-.14	.18	-.38	-	.17
	친밀감	-.17	.36	.01	.08	.14	-.50*	-	.12
	인정	-.26	.44	-.13	-.21	.37	.16	-	.31
	즐거움의 공유	-.32	.39	.27	-.06	.13	-.25	-	.18
	전체	-.24	.42	-.05	.42	.24	.44	-	.27
부정적 측면	갈등	-.01	.43	.19	.14	-.12	-.14	-	.24
	경쟁	-.28	.27	-.19	.36	.51*	-.25	-	.16
만족감		-.17	.45	.08	-.04	.02	-.56*	-	-.16

<sup>1)</sup>  $p < .10$  \*  $p < .05$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별로 상관을 구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인기 아동의 경우 '인기 아동 자신이 패하고 친구가 이기는 결과'와 친구관계의 질 중 '경쟁'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51, p < .05$ ). 즉 인기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경쟁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친구와의 갈등을 친구가 원하는 대로 끝내는 경향이 더 많았다.

한편, 거부 아동의 경우, '거부 아동 자신이 패하고 친구가 이기는 결과'와 친구관계의 질 중에서 '만족감'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r = -.56, p < .05$ ). 즉 거부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수록 실제로 그 친구와의 갈등에서 자신이 패하고 상대 친구가 이기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부 아동 자신이 패하고 친구가 이기는 결과'와 '친밀감' 간에 부적 상관의 경향이 나타

나서( $r = -.50, p < .10$ ), 거부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실제로 그 친구와의 갈등에서 자신이 패하고 상대 친구가 이기는 경우가 더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친구 간 갈등해결방식 및 갈등종결방식이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그리고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종결방식의 관계가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관계의 질은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보다 친한 친구에게서 충고를 받거

2) 인기 아동의 경우 친구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종결된 사례가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상관계수가 산출되지 않았음.

나 정보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친구와 갈등과 경쟁도 더 적다고 지각하였다. 또래 지위에 따른 이러한 친구관계의 질에서의 차이는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다. Parker와 Asher(1993)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지위가 낮은 아동은 높은 아동에 비해 인정과 돌봄, 도움과 안내를 덜 받고 친밀한 자기 노출이 더 적으며, 갈등과 배신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윤미경(1999)의 연구에서도 또래지위가 낮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갈등과 배신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친구관계의 질 중 긍정적 기능과 관련해서는 도움에서 또래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부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갈등과 경쟁 모두에서 또래지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측면의 질에서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으나,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과 경쟁에서는 거부 아동이 인기 아동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조망수용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래로부터 인기있는 아동에 비해 거부 아동의 경우 자기 지향적이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특성(Putallaz & Wasserman, 1989)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친구관계에서도 갈등과 경쟁이 인기 아동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갈등해결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에 비해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지배적인 방식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기있는 아동은 언어를 사용하여 친구

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려는 절충 및 협력 방식을 거부된 아동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이에 반해 거부된 아동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 친구를 지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통제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들(Rose & Asher, 1999)의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친구와의 갈등을 종결시키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평등한 해결'과 '해결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에서 유의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에 비해서 친구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아동이 서로 만족할만하게 평등하게 해결하는 경우는 더 많은 반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는 더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에 비해 절충/협력의 갈등 해결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지배적인 방식은 더 적게 사용했다는 본 연구의 갈등해결방식에서의 결과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절충/협력 방식은 자신과 상대 양쪽 모두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양방이 수용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방식이고, 지배 방식은 자신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승-패 지향적이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기 아동은 절충/협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갈등이 평등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에게 비해서 친구 간 갈등을 서로에게 더 평등하게 해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기 아동이 거부 아동에 비해 타인의 관점을 더 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두 아동 간에 발생한 갈등이 평등하게 해결하는 것은 두 아동 모두가 서로의 다양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Siddiqui & Ross, 1999). 교환이론에 근거한

공평성 이론(Walster, Berscheid, & Walster, 1973)에 따르면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대가와 보상이 각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고 지각될 때 관계가 유지되며, 상호작용에서의 불공평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위험 요소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평성 이론에 비추볼 때, 거부 아동이 인기 아동에 비해 갈등이 공평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더 적다는 결과는 이러한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인기 아동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반해서 거부 아동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도 인기 아동에 비해 더 유의하게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Katz와 동료들(1992)도 갈등이 자주 해결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은 첫째, 아동이 친구 간에 놀이를 지속시키지 못하게 하고, 둘째, 부정적 정서는 가속화되고 긍정적 정서는 억제되는 것과 관련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친구 간에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 계속되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감소하고(Furman & McQuaid, 1992),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이 계속 사용될 때 친구관계의 만족감을 저하시켜 결국 친구관계를 종결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간에 나타난 유의한 상관관계는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인기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신뢰롭다고 지각할수록 그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보를 더 많이 하였으며, 관계에 만족스러워 할수록 지배하는 방식은 더 적게 사용하였다. 그리고 친구에게 친밀함을 느

낄수록 회피 방식을 더 적게 사용하였고, 친구관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그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식은 덜 사용하였다. 즉 친구관계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갈등해결방식도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인기 아동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적 요소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절충 및 협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인기 아동이 친구와의 갈등을 되도록이면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회피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친구와 지속적인 협상을 하고 의견을 좁혀나가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기 아동이 친구를 친밀하게 느끼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갈등을 회피하거나 타인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으려 하는 등,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또한 갈등해결방식과 갈등해결목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Rose & Asher, 1999)에서는 절충이나 조절과 같은 친사회적 전략이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관계유지 목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근거할 때 절충/협력 방식을 인기 아동이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에게 그만큼 만족하고 있고 현재 관계의 기능이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거부 아동은 친구관계가 갈등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의 중재 요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인기 아동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거부 아동은 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중 어느 것이 선행 요인인지는 현재의 연구로서는 구분할 수 없지만, 친구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서 직접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낮은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부 아동은 친구와 즐거움을 공유할수록 그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 방식을 덜 사용하고 절충 및 협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 아동이라도 친한 친구 간에는 지배 방식보다는 절충하고 협력하는 긍정적인 해결방식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거부 아동의 적응에 바람직한 결과이다.

넷째,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종결방식 간에 나타난 유의한 상관은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기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경쟁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친구와의 갈등을 친구가 원하는 대로 끝내는 경향이 더 많은 반면, 거부 아동의 경우 친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하고 그 관계에 전반적으로 만족할수록 그 친구와의 갈등에서 자신이 패하고 친구가 이기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데, 인기 아동의 경우 경쟁적인 친구에게 오히려 자신이 양보하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갈등을 종결시키는 경향이 더 많게 나온 반면, 거부 아동은 친밀하고 만족하는 친구일수록 그 친구와의 갈등에서 양보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아동의 경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갈등해결방식과 친구관계의 질 간 상관 중에서 친구관계가 갈등적일수록 절충/협력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에 반해 거부 아동은 친밀하다고 느끼는 친구일수록 상대를 존중해주기보다는 더 쉬운 상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반응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은 친구관계의 질에서 뿐 아니라 실제 이들의 갈등해결방식 및 갈등종결방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특히 거부 아동의 경우 친구관계에서 경쟁과 갈등이 있고, 갈등해결방식과 종결방식도 친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간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입장 뿐 아니라 상대 친구의 입장도 잘 이해하고 고려하고 친구와 진지하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위해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고려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따라서 거부 아동의 더 나은 적응을 위해서 친구관계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친구관계의 질은 자신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아동의 지각은 실제 친구관계의 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Parker & Asher,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아동들이 서로 친하다고 지명한 상호 친구를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친구관계의 질이 친구와의 실제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거부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함께 이들이 친구 간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고 어떤 방식으로 종결하는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음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데 그 실용적 의의가 있다. 친구관계의 보호적 기능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 따르면 지지적인 친구가 있는 경우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도 부적응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실

제 친구간에 나타나는 행동을 관찰함에 따라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상호 친구로 지명한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의 질을 조사하였지만, 친구관계는 이원적 관계이므로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의 지각과 평가가 상이할 수 있다. Furman(1996)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대 아동에 대한 지각과 평가를 보고하는 것은 친구관계가 제공하는 기능과 질을 평가하고 발달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초점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상대 친구가 지각하는 친구관계의 질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Rose & Asher, 1999) 뿐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관계의 특성이 친구관계의 질이나 친구관계의 유지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갈등해결방식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같이 파악한다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위 중 거부 아동과 인기 아동만을 선택하여 이들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및 갈등종결방식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나, 무시되는 아동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집단과 같은 다양한 또래지위 집단으로 나누어 친구관계를 연구한다면 결과 해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송이 · 박경자(2001). 또래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갈등해결방식. **아동학회지**, 22(4), 69-84.  
 배선영(2000).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오원정 · 이은혜(2000).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지각과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14, 36-48.

윤미경(1999).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윤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이은혜(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이은혜 ·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임은정(2005). 학령기 아동의 불안 및 우울과 친구관계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Carlson-Johnes, D. (1985). Persuasive appeals and responses to appeals among friends and acquaintances. *Child Development*, 56, 757-766.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Eis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Furman, W. (1996). The measurement of friendship perceptions :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41-70).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Furman, W., & McQuaid, E. L. (1992).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 C. U.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pp.402-429).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tup, W. W., Lau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590-1600.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s, and peer relationship.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

- ment.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5), 1579-1601.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ose, A. J., & Asher, S. R. (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 with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79.
- Putallaz, M., & Wasserman, A. (1989). Children's naturalistic entry behavior and sociometric status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297-305.
- Siddiqui, A. A., & Ross, H. S. (1999). How do sibling conflicts end?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0(3), 315-332.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 Norton.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 Vliert, E. V. D. (1997). *Complex interpersonal conflict behavior : Theoretical frontiers*(pp.3-23). PA : Psychology Press.
- Walster, E., Berscheid, E., & Walster, G. W. (1973). New directions in equit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151-176.

---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8일 채택